

어느 부부의 작은 소망

저는 작년 4월 초, 후쿠오카 교구의 '이토시마'성당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으로 약 두 달간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후 미사가 재개된 뒤에는 미사 참석 인원을 분산시켰기에 한 달간 신자들과 첫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미사 후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신부님, 저희 성당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중에 바쁘실 텐데 초면에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마스크를 쓰고 계셨지만, 자매님의 밝은 목소리와 웃는 눈을 보며 ‘무슨 부탁일까?’ 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부님, 저의 장례 미사를 이 성당에서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50대 초중반에 키가 크고 깡마른 자매님의 이상한 부탁에 저는 표정이 굳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자매님 뒤에는 남편으로 보이는 분이 분노에 찬 듯한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녀들로 보이는 청년 셋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매님과 남편을 사람들과 떨어진 곳에 모시고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저, 죄송한데, 무슨 말씀이신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인지...” 방금 전까지 밝은 목소리였던 자매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네, 신부님... 제가 폐암 말기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온전할 때 미리 장례미사를 직접 부탁드립니다 싶습니다. 초면에 이런 청을 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매님, 저도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자매님과 남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장례

관련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말을 한 뒤, 저는 두 분에게 안수를 해주고 한 분씩 안아드렸습니다. 제가 아닌 예수님께서 분명 이렇게 안아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자매님에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성당에서 큰아들의 결혼식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당이 처음 생겼던 30여 년 전, 자매님은 이곳에서 신자였던 남편과 ‘이토시마성당 1호’로 결혼식을 올리셨답니다. 그리고 신자가 아니었던 자매님은 그 후 세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느님을 만나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저에게 몇 번이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말, 화창한 가을날에 자매님은 아들의 결혼을 무사히 올렸습니다. 그 뒤 겨울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께서 갑자기 찾아와 고해성사를 청하셨고, 성사 뒤에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신부님, 분명 언젠가 집사람이 떠날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는 것이 너무 슬프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느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다는 자매님의 말씀과 하느님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음을 믿는 남편의 말씀 속에서, 저는 다시금 신앙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시 미사가 중지되어 두 분을 만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두 분에게 남은 시간, 하느님의 은총 속에 따뜻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광수 베드로 신부 | 일본 선교



후원 ARS 1877-1336
또는 QR 코드 접속